

KWC 2020 CHILEAN WINE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20에 이탈리아에 이어 가장 많은 와인을 출품한 국가는 칠레다. 간발의 차이로 2위에 머물렀지만, 칠레 와인들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많은 심사위원들이 KWC 2020의 인상적인 특징으로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언급했다. 해마다 KWC에서는 칠레 와인의 비약적 발전에 대해 언급이 있었지만, 대체로 묵직한 레드 와인 중심이었다. 올해는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까지 골고루 찬사를 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실제 칠레는 스파클링 와인 부문에서 트로피를 차지하기도 했다. 글 강은영, 조은지 사진 Wikipedia, 오드펠, 알리, 몽그라스

칠레의 주요 와인 산지

길이 4,270 km의 가늘고 길게 뻗은 나라. 칠레의 와인 산지는 북에서 남으로 차례차례 나뉜다. 좁은 동서의 거리 안에서도 서쪽의 태평양과 동쪽의 안데스 산맥이라는 상반된 자연환경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와인생산자들은 세부적으로 좀 더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좀 더 익숙한 와인 산지 개념은 북에서 남으로 계곡별로 나눈 경우다. 칠레의 와인 산지는 국토의 중간 지대에 집약돼 있다. 가장 주요한 지역은 그 안에서 중심부인 센트럴 밸리이다. 와인 산지로는 마이포 밸리에서 마울레 밸리까지 아우르고 수도 산티아고가 이 안에 있다. 대체로 많은 와인생산자들이 센트럴 밸리나 그 위쪽의 아콩가구아 밸리에 터를 두고, 다른 산지들을 탐험하며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칠레의 와인 생산자들은 산지별로 묶어 소개하기 보다는 산지들의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KWC 2020에서 수상한 와이너리들을 만나보도록 하자.

ELQUI VALLEY 엘끼 밸리

칠레 최북단의 와인 산지다. 칠레 북부에는 아타카마 사막이 펼쳐져 있지만, 엘끼 강이 사막의 무더위를 완화시켜준다. 다만 연 강수량은 70mm로 매우 건조하다. 이곳은 해발 2,0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포도밭들이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칠레의 여느 지역보다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품종들이 잘 되는 편이다. 특히 시라나 소비뇽 블랑 같은 품종으로 질 좋은 와인을 선보인다. 최근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오드펠 와이너리에서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알리의 포도밭

LIMARI VALLEY 리마리 밸리

엘끼 밸리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무덥고 건조한 지역이지만, 리마리 밸리가 형성한 해안 절벽으로 인해 인근 내륙 지역에 비해서는 서늘하고 녹지가 많다. 또 여름 아침에는 해안에서 안개가 밀려와 포도밭에 선선한 기온과 습도를 더해준다. 그래서 리마리 밸리는 신선한 산도와 미네랄의 특징을 보이는 샤르도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내륙에서는 대부분 레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시라가 잘 된다.

CHOAPA VALLEY 초아파 밸리

리마리 밸리 바로 남쪽에 자리한 산지다.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자리 잡은 포도밭들은 서늘한 흙볼트 해류의 영향까지 받아 북부 지역임에도 기후는 서늘한 편이다. 전통적으로는 페스꼬 브랜디에 쓰이는 화이트 품종의 재배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와인 산지로 개발되면서는 시라, 까베르네 소비뇽 등의 레드 품종도 재배되고 있다.

ACONCAGUA VALLEY 아콩카구아 밸리

칠레에서 와인 생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아콩카구아 강과 해안가의 신선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고 우아한 레드 와인을 양조한다.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까르메네르가 주로 재배된다. 최근에는 소비뇽 블랑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포도밭을 관리하는 와이너리들이 늘고 있다.

CASABLANCA VALLEY 카사블랑카 밸리

1980년 중반 샤르도네가 처음 식재되면서 칠레 와인산업에 새바람을 일으킨 곳이다. 1982년 서늘한 지역을 찾고 있던 와인메이커 파블로 모란데가 처음으로 이곳에 2ha의 포도밭을 사들여 재배를 시작했다. 카사블랑카 밸리가 유독 서늘한 이유는 태평양 해안에서 30km 거리에 있어 훔볼트 해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의 화이트 품종과 피노 누아와 메를로가 질 좋은 것으로 손꼽힌다.

SAN ANTONIO VALLEY 산 안토니오 밸리

카사블랑카 밸리 남쪽,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포도밭은 주로 해안에서 4km 내륙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기온이 서늘해 포도가 늦게 익는 편이다.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샤르도네, 시라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상쾌하면서도 미네랄이 느껴지는 화이트 와인이 강세다. 산 안토니오 밸리는 레이다(Leyda), 로 아바르카(Lo Abarca), 로사리오(Rosario)의

구지역과 말빌라(Malvilla), 까르파헤나(Cartagena), 르레오레오(Lleolleo) 등의 신규 지역으로 나뉜다.

MAIPO VALLEY 마이포 밸리

칠레의 가장 대표적이며 전통적인 와인 산지이다. 19세기부터 프랑스 와인에 영감을 받은 와이너리들이 들어섰다. 전통적 명문 와이너리들이 거의 모두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약 100km 남쪽, 안데스 산맥과 해안 산맥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토양은 바위와 자갈이 함께 섞여 있어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마이포 밸리는 칠레에서 가장 뛰어난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CACHAPOAL VALLEY 카차포알 밸리

산티아고에서 남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기후는 세부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안데스 산의 찬 지대부터 라펠호 주변의 가장 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대조적이다. 생산되는 와인은 레드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주된 품종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가 있다. 포도밭은 주로 안데스 산쪽에 분포되어 있다. 일교차가 무려 20도에 이르러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기에 적합하다.

COLCHAGUA VALLEY 콜차구아 밸리

콜차구아 밸리는 오래 전부터 레드 와인 명산지로 명성이 높았다. 카차포알 밸리에서 서남쪽으로 내려와 자리 잡고 있으며 꾸리코 밸리와 접점을 이룬다. 기후는 카차포알보다 서늘하며 대표적인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그 외 까르메네르, 시라로 좋은 와인을 선보이고 소량이지만 말베크도 생산된다. 최근에는 와이너리들이 해안가 쪽으로 포도밭을 확장하면서 소비뇽 블랑과 같은 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재배하는 추세이다.

CURICO VALLEY 꾸리코 밸리

꾸리코 밸리는 동쪽의 해안산맥이 태평양의 영향을 막아 대륙성 기후를 띤다. 밤낮의 일교차가 몹시 큰 이곳에서는 섬세하고 풀바디한 레드 와인 과 화이트 와인이 빛어진다. 와인 생산 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포도재배 지역이 증가했고, 와인산업은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까베르네 소비뇽과 소비뇽 블랑이 많이 재배되며, 메를로와 샤르도네도 생산된다.

MAULE VALLEY 마울레 밸리

센트럴 밸리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칠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인산 지인만큼 다양한 페루아를 보인다. 마울레는 다시 3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안데스 산맥의 구릉에 위치한 북동지역, 마울레 강과 론코밀라(Loncomilla) 강을 아우르는 가장 넓은 면적의 중앙 지역, 그리고 해안가 가까이에 위치한 남서쪽 지역이다. 마울레 밸리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몽그라스의 포도밭

많이 재배되며, 울드바인에서 난 가리냥으로 특별한 와인을 빚기도 한다.

ITATA VALLEY 이따타 밸리

460년, 이 지방의 콘셉시온(Concepcion) 항구에 처음 포도나무가 들어온 역사가 있지만 와인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덥고 습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 추위 때문에 포도 재배가 쉬운 지역은 아니었다. 그간 전통적인 품종들이 주로 재배되었는데, 최근 도전 정신이 강한 와인생산자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국제 품종으로 질 좋은 와인을 빚기도 한다.

BIO BIO VALLEY 바이오 바이오 밸리

최근 칠레 생산자들이 신선한 스타일의 와인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바이오 바이오 밸리에 실험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곳은 기후가 극단적으로, 비와 바람이 많고 날씨 변화도 큰 편이다. 그간 모스카텔과 파이스가 주로 재배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로마틱한 화이트 품종과 피노 누아 같은 섬세한 와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MALLECO VALLEY 말레코 밸리

칠레 최남단의 와인산지, 1995년 처음 샤르도네를 식재한 이래 매우 유명한 산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강우량은 연간 1,300mm로 상당한 편이며, 토양은 충적토, 사토 등으로 되어있다. 소비뇽 블랑을 위시해 샤르도네, 피노 누아, 게뷔르츠트라미너 등이 재배된다.



KWC 2020 수상 와이너리



▶ Concha y Toro 콘차이토로

콘차이토로에는 와인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이 대거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KWC 2020에서 수상한 마르케스 데 까사 콘차와 디아블로가 있다. 알마비바나 돈 멜초 같은 칠레 최고급 와인들도 생산한다. 콘차이토로는 1883년 돈 멜초 드 산티아고 콘차이토로가 아내와 함께 마이포 밸리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1933년에는 수출을 시작했다. 이후 최신기술을 도입하며 와인 생산 규모를 확대해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와인생산 그룹이 되었다.

수입사 다수 수입사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Marques de Casa Concha Etiqueta Negra
- Silver** Diabolo Black Cabernet Sauvignon
- Silver** Diabolo Dark Red
- Silver** Marques de Casa Concha Cabernet Sauvignon
- Silver** Marques de Casa Concha Carmenere
- Bronze** Casillero del Diabolo Platinum Reserve
- Bronze** Casillero del Diabolo Reserva Especial Cabernet Sauvignon
- Bronze** Casillero del Diabolo Reserva Especial Syrah

▶ Cono Sur 코노 수르

1993년 설립 후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와이너리다. "칠레 와인의 새로운 뉴스는 코노 수르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코노 수르의 CEO이자 수석 와인메이커인 아돌포 우르타도(Adolfo Hurtado)의 말처럼, 많은 혁신을 추구한 와이너리이기도 하다. 특히 칠레 피노 누아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서늘한 기후를 찾아 비오비오 밸리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이 나라에서 흔치 않는 품종 재배도 시도했다. 또한 친환경 와인생산에도 선구자이다.

수입사 신세계L&B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Cono Sur 20 Barrels Carmenere
- Gold** Cono Sur 20 Barrels Chardonnay
- Gold** Cono Sur Ocio
- Gold** Cono Sur Single Vineyard Carmenere
- Silver** Cono Sur 20 Barrels Pinot Noir
- Silver** Cono Sur Silencio Cabernet Sauvignon
- Silver** Cono Sur Single Vineyard Chardonnay
- Bronze** Cono Sur 20 Barrels Cabernet Sauvignon
- Bronze** Cono Sur Single Vineyard Pinot Noir

▶ Tarapaca 타라파카

1874년 마이포 밸리에 설립된 와이너리로, 내수와 수출시장을 모두 잡고 있다. 소비자사기관 닐슨 칠레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 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타라파카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시장 내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611ha의 포도밭에서 연 평균 1,050만 리터의 와인을 생산하며, 생산량의 70%는 50여 개국으로 수출된다. 또한 타라파카는 자연친화적 와이너리로 와인을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은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한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Tarapaca Gran Reserva Chardonnay
- Silver** Tarapaca Gran Reserva Anniversary 145
- Silver** Tarapaca Reserva Chardonnay
- Bronze** Tarapaca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 Bronze** Tarapaca Gran Reserva Etiqueta Negra
- Bronze** Tarapaca Gran Reserva Syrah

▶ Leyda 레이다

레이다 밸리는 근래 칠레 와인생산자들이 관심을 갖고, 새롭게 발굴한 지역이다.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딴 레이다 와이너리가 설립된 건 1998년. 이 건조한 땅에 마이포 강에서 8km에 이르는 수송관을 건설하며, 이 지역 최초의 포도원을 조성했다. 2002년에는 칠레 정부가 이 지역을 새로운 DO 산지로 공식 발표한다. 레이다 와이너리는 VSPT 그룹에 속해 있는 와이너리로, <Drink International>에서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50대 와이너리'로 선정된 바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Leyda Single Vineyard Garuma

▶ Aresti 아레스티

돈 빈센테 아레스티 아스타카는 꾸리코 밸리 페루아의 특성을 알아보고, 1951년 이곳에 포도밭을 사들였다. 1987년 양조 기판 시설을 마련했고, 1990년 마침내 '아레스티'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생산하게 된다. 1999년에는 대규모 지하 저장고,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프렌치 오크 배럴 등을 구비하고 온도와 습도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설비들을 마련했다. 효율적인 양조 시스템을 갖춘 와이너리로 발돋움한 이들은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며 유명 와인 컴퍼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Aresti Trisquel Cabernet Sauvignon

▶ San Pedro 산 페드로

1865년 설립된 칠레의 대표적인 와인 그룹이다. 설립년도를 브랜드 명으로 한 1865부터 몰리나, 에피카, 가토네그로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와인들이 산 페드로 이름 아래에서 만들어진다. 또 프리미엄 와인 레인지는 그란데스 비노스 데 산 페드로라는 유닛으로 묶어 생산한다. 한편 산 페드로는 2008년 또 다른 칠레 와인생산자인 타라파카와 합병하며, VSPT 그룹으로 거듭났다. VSPT 그룹은 칠레 내수시장에서 와인 판매량과 판매액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리스트

- Best Chile Red** 1865 Pisco Barrel
- Gold** Castillo de Molina Tributo **Silver** 1865 Old Vines
- Silver** 1865 Selected Vineyards Carmenere
- Silver** 1865 Selected Vineyards Syrah
- Silver** 9 Lives Sauvignon Blanc
- Silver** Altair **Silver** Cabo de Hornos
- Silver** Castillo de Molina Cabernet Sauvignon
- Silver** Castillo de Molina Carmenere
- Silver** San Pedro Signature Cabernet Sauvignon
- Silver** San Pedro Signature Carmenere
- Silver** Sideral **Bronze** 1865 Selected Vineyards Pinot Noir

▶ Casas del Toqui S.A. 까사 델 토키 S.A.

1994년 보르도의 와인 생산자인 샤프 로르즈 트랑토돈은 칠레의 또띠우에 지역에서 전통을 고수하며 와인을 생산하는 그라넬라 가문과 힘을 합쳐 까사 델 토키를 설립했다. 2010년부터는 칠레 와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코트(Court) 패밀리가 와이너리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라펠 밸리와 마이포 밸리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환경 보존을 위해 천연 코르크를 사용하며 유리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 Trophy Sparkling**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Extra Brut Blanc de Blancs
- Silver**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Mater Carmenere
- Silver** El Toqui Limited Edition Cabernet Sauvignon
- Bronze**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Filius Blend de Blends



▶ Lapostolle 라포스톨

라포스톨은 1994년 프랑스 유명 와인 생산자 마르니에 라포스톨 가문과 칠레 라뻬 가문의 합작으로 탄생했다. 이들은 콜차구아 밸리에 서도 최고급 와인 산지인 아팔타(Apalta) 지역에 포도밭을 매입했고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 미셸 롤랑에게 컨설팅을 맡겼다. 또한 모든 와인의 퀄리티는 포도밭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포도밭의 관리, 와인의 양조에 이르기까지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을 시행하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Lapostolle Red Blend

Silver Lapostolle d'Alamel Reserva Cabernet Sauvignon

Silver Lapostolle Grand Selection Cabernet Sauvignon

▶ Las Cinco Hermanas 라스 씩고 에르마나스

스페인어로 다섯 자매를 뜻하는 라스 씩고 에르마나스는 와인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다섯 자매가 운영하는 부띠끄 와이너리다. 칠레 산티아고 북서쪽, 발파라이소(Valparaiso)의 까빌도(Cabildo)에 위치해 있다.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이 마주하고 있어 포도 재배에 도움을 주는 미세 기후가 형성되는 곳으로, 모든 포도는 이곳에서 재배된다. 리오 루아는 이들의 첫 프리미엄 와인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다양한 품종을 블렌딩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Rio Lua

▶ Odfjell 오드펠

노르웨이 선박회사 오드펠의 대표 단 오드펠(Dan Odfjell)은 남미 출장 중 마이포 밸리의 떼루아에 매료되어 1990년 포도밭을 매입하게 된다. 1997년 건축학을 전공한 아들 로렌스는 중력의 흐름을 이용해 와인 풍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Gravity Flow'에 중점을 둔 와이너리를 설계했다. 오드펠 와이너리는 포도밭의 떼루아를 순수하게 반영하는 친환경적인 와인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들의 포도밭에는 트랙터를 대신한 말들이 든든한 일꾼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Odfjell Armador Cabernet Sauvignon

▶ Quebrada de Macul 퀘브라다 드 마쿨

변호사 출신인 리카르도 페냐(Ricardo Pena)는 1970년 칠레 프리미엄 와인 생산을 목표로 퀘브라다 드 마쿨을 설립했다. 이들의 와인은 산티아고의 남동쪽에 위치한 마쿨(Macul)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들어진다. 한편 2002년에는 프랑스 생떼밀리옹과 우루과이에서 경험을 쌓은 실력 있는 와인메이커 장파스칼 라까즈(Jean Pascal Lacaze)가 합류했다. 그는 칠레 본연의 떼루아에 보르도 스타일의 깊은 맛을 끌어낸 와인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Quebrada de Macul Alba de Domus

▶ Veramonte 베라몬테

1990년 어거스틴 후네우스(Agustin Huneeus)가 설립한 와이너리다. 그는 1960년대 콘차이토로의 CEO를 맡고, 1989년 나파 밸리에 퀴테사 에스테이트를 설립하는 등 이미 와인 산업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 카사블랑카 밸리에서 40ha의 포도밭으로 시작한 베라몬테는 카사블랑카의 420ha, 콜차구아 밸리의 80ha를 비롯 마이포 밸리에도 포도밭을 확장해 나갔다. 현재 유기농법으로 포도밭을 관리하며 섬세한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문도비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Veramonte Ritual Chardonnay

▶ TerrAustral S.A. 페르오스트랄 S.A.

페르오스트랄의 역사는 1938년 설립자 호세(Jose)가 꾸리코 밸리에 포도나무를 심으며 시작되었다. 이후 와인 산업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와인메이커 페르난도 바르가스(Fernando Vargas)가 합류했고 페르오스트랄은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들은 카사블랑카, 마이포, 콜차구아, 꾸리코, 마울레 밸리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3대째 와인 생산을 이어오며,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TerrAustral PKNT Platinum Cabernet Sauvignon

Bronze TerrAustral Santa Isle Grand Reserve Selected Vineyards Cabernet Sauvignon

Bronze TerrAustral Tripantu Premium Cabernet Sauvignon

▶ Viña El Principal 비나 엘 프린시팔

현 오너 패트릭 발레테의 아버지는 사또 파비를 팔고 고향인 칠레로 돌아와 1998년 엘 프린시팔을 설립했다. 비나 산타 리타의 전 소유주인 폰텐 가문과 함께 세운 와이너리로, 이들은 산티아고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피르케(Pirque) 지역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메를로, 가르메네르, 까베르네 소비뇽을 재배한다. 특히 엘 프린시팔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 1001'에 선정된 바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El Principal Calicanto **Bronze** El Principal Red

▶ Viña I Wines 비냐 아이 와인즈

오랫동안 와인 양조 경험을 쌓아온 와인메이커 이레네 파이버(Irene Paiva)는 2007년 가족 소유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그녀는 고품질의 와인 생산을 목표로, 와인이 탄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아이 와인즈가 소유한 포도밭은 총 3개로, 칠레 카차포알 밸리의 페우모(Peumo)에서는 가르메네르, 마울레 밸리의 몰리나(Molina)에서는 시라, 까베르네 소비뇽, 꾸리코 밸리에서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을 재배한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I Latina Petit Verdot

▶ Viña Montgras 비냐 몽그라스

그라스(Gras) 가문의 형제 에르난(Hernan)과 에두아르도(Hdurado)는 1993년 콜차구아 밸리에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몽그라스라는 이름은 산(Mountain)과 설립자 형제의 성을 조합한 것이다. 이들은 와인 양조의 모든 공정에 최신 기술의 제조공법 시스템을 갖추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후 각종 국제 와인 대회에서 100여 개가 넘는 메달을 수상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칠레 와인 산업의 성공 사례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Montgras Aura Reserva Cabernet Sauvignon

Gold Montgras Intriga

▶ Viña Ventisquero 비냐 벤티스쿠에로

벤티스쿠에로는 칠레 최대 농수산물 회사인 아그로 수퍼(Agro Super)의 자회사로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2000년부터 와인을 생산했다. 수석 와인메이커 펠리페 토소(Felipe Tosso)의 지휘 아래 마이포 밸리에 처음 와이너리를 세우고 3년 후에는 카사블랑카, 아팔타 밸리로 영역을 넓혔다. 한편 이들의 한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 서도 잘 알려진 알리(Yali)가 있다. 칠레 국립 산림공사가 조성한 알리 습지대에서 이름을 딴 알리는 친환경적인 와인을 추구한다. 수입사 알라: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Yali Three Lagoons Carmenere

Bronze Yali Three Lagoons Cabernet Sauvignon

▶ Vitivinicola Cremaschi Barriga S.A.

비티비니콜라 크레마스끼 바리가 S.A.

이탈리아인인 파블로 크레마스끼(Pablo Cremaschi)가 칠레로 이주하여 세운 와이너리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마울레 밸리 중심부인 룬코밀라 밸리(Loncomilla Valley)로,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현재 4대째 가족 경영으로 1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크레마스끼 바리가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조상들의 양조 노하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모든 포도밭을 유기농법으로 전환하여 토양의 개성을 담은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BNC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remaschi Furlotti Edicion Limitada de Familia

Silver Cremaschi Furlotti Single Vineyard Cabernet Sauvignon